

종교간 진리가 모두 같다는 것은 언어의 희롱일 뿐이다

불교와정책 범용 스님 화쟁위 '종교평화선언' 조목조목 반박

불교와정책 운영위원 범용 스님이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화쟁위원회가 8월 23일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스님은 이번 선언문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정리=박기범 기자

총평
선언문을 보면 아무리 검증은 위한 초안이라 해도 상대 종교의 창조 세계관을 인정하고 연기법을 부정하는 인상이 다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은 그 종교 자체의 인정과 교류와 이해를 통한 다분히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내면세계의 교리자체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긍정하는 화학적인 것을 거론시 불교에 대한 중대한 오해와 오류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편협까지 발전돼 승려는 물론 불자들이 혼돈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

상대의 종교 또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인연의 차이일 뿐입니다.”

- 불교와 종교 갈등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계와의 중대한 차이는 절대적 신 즉 창조주의 인정 또는 불인정이다. 즉 '불변고정'이나 '무상'이나 하는 절대 융섭할 수 없는 괴리다.

“나의 종교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듯이 상대의 종교 또한 우주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는 연기론적 우주관과 일체유신조를 폄하하는 문장으로 충분하다.

“각자의 다른 인연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은 '있는 그대로' 세계의 실상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불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원적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이며, 이웃종교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바탕입니다.”

- 선과 악, 님이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할 때 선의 무력증,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복지, 환

창조론은 무명·번뇌에 불과

절대신 인정 차이 융섭 불능

경마저도 불필요한 것이며, 모든 파괴의 자행마저도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합리화 또는 미화가 가능하다. '우주의 전개나 사물과 사물의 융섭'이 아닌 인간이 만든 특정 종교나 사상을 실제의 현실에 대입하는 오류는 무신도인들의 세계가 아니면 거론치 말아야 한다.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든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 아쇼카 왕의 관점에서 볼 때 참회하고 선을 베풀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우리는 당장의 현실에서 살육의 독재자로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주의 세계관도 하나의 무명에 불과한 것이며 번뇌라는 규정이 가능하다. 종교 갈등의 중심인 기독교의 창조자를 긍정하는 내용의 선언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

“선언”은 무엇을 인정하고 지나칠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전혀 그러한 노력을 일기 어렵다.

이번 선언이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도 큰 우려다. 이를 활성화 하려면 타 종교계가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의문이다. 자칫 불교계가 현실에서 밀리니 대자비심을 보인 것으로 약자의 자세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도 다분하다. 구성 역시 전체적으로 내용이 길어 혼란스럽고 타 종교를 인정하고 상생하자는 지나친 의도에서 불교의 교리도 진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부지적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반목과 대립은 바람직한 생존의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연기적 세계관의 가르침입니다.”

- 인류가 유사 이래 창조한 종교나 사상을 현실에서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여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을 인간이 창조한 온갖 사상에 대입해서 해석하고 관계성을 부여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있기에 독재가 있고, 독재가 있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는 등식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는 악을 합리화 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며, 범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나의 종교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듯이



▲범용 스님은 화쟁위 종교평화선언이 상생에 치우쳐 불교를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인정해야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아쇼카 왕이 재임시 불교의 포교와 통치 역시 강력한 정보통제 정치에 기인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웃종교를 진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웃종교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이웃종교를 질시하거나 경쟁하는 상대로 여겼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웃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배우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 이 대목은 과거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에서 관군에 쫓긴 천주교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강학의 장소를 제

공해 '이웃' 이상으로 대한 스님들을 목보이는 문장으로 충분하다. 부처님도 마음으로 단지 생각만은 죄가 안 된다고 했다.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문제다. 마치 불교가 승려들이 기독교나 타 종교를 생각으로 배척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한 그들을 우리 불교계나 승려 개개인이나 치게 '이웃'으로 여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선언문 작성자는 그러한지 모르나 그러한지 않은 대다수의 승려들을 모독하기에 충분하다.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심하게 말해 '해종행위' 라

고도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진리'는 모든 종교가 보편적 가치로 추구하는 자비, 사랑, 박애, 헌신, 보살행, 나눔 등의 '지말무명'적인 것이 아니라 생사관으로서 '근본무명'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며, 지나친 표현이다.

승려의 입장에서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중단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단지 타 종교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지말무명'의 해결에 대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향한 동반적 관계이며 이웃 종교의 장점을 통해 내 종교의 부족함을 채우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동지적 관계입니다.”

- 종교간 평화, 상생을 부정할 자는 없다. 그러나 '이웃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은 중단 기구가 승려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배우라는 의미로 해석이 충분하다. 중대한 오류라는 생각이다.

“전범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지향하고 다른 종교인들

타 종교 진리인정은 '해종' 행위

전범의 의미 스스로 제한해서야

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이 대목은 불교의 포교를 포기하는 선언과 님이 없다. 불교에 대한 무지한 문장이자, 불교에서 '신(信)의 의미는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성불을 한다는 확신의 의미다. 혹 불교의 믿음(信)을 타종교인의 사실상 절대적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설사 전범이 개종이 아닌 불교를 이해시킴에 한주 하고 개종여부는 당사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전범의 의미를 제한'하여 스님과 포교사들로 하여금 혼돈을 자초하고 이해에 따라서는 불교는 타 종교인의 개종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당시에 개종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만이 가능한 일이며, 현 시대에 구태여 필요하다면 이러한

결정은 '종정예하'만이 가능하며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락을 얻고자 하듯이 이웃종교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 평화와 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르고자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 많은 분들이 진리는 하나며 등산에서 산정을 향하는 목적은 하나라 한다. 언어의 희롱이다. 산의 정상에 '무아'와 '무상'이 있는 산인지, '창조적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산인지는 분명 다르다. 중단 차원에서의 발표는 심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독교식의 '기도'가 불교 내부에 판치고 있다. 가히 '종교문화사회주의'라 할 것이다. 불교가 삼투압 현상으로 타종교에 빨려 들어간다는 생각이며 현실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끝내며

이 선언의 문제는 결국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을 준비한 분들의 노고와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계종을 대표해서 나가는 모든 선언은 단언하나, 점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지나친 표현도 있음을 인정하고 애중심으로 이해 바랍니다.

지난번 비공개 토론회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으며, 당시 자리를 같이한 다른 토론자들도 많은 부분을 동의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정하거나 좀 더 전문적인 불교계 인사들로 하여금 검증하고 중진 대덕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중평위나 화쟁위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안이나, 종단을 넘어 범 불교계의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선언을 타종교계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불교의 다양한 방편 중에 적용할 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문을 공개해서 대중적으로 건의나 문제제기를 하라는 것이 열린 자세인지는 모르나 언론을 통해 한번 나간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비추어 질수도 있음이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아영가 천도재 및 구담사 이전 법회

구담사 이전 법회

애자모지장보살님 육지장보살님 나반존자님 정안법회
법문 : 밀운 큰스님(봉선사 회주) 일시 : 9월4일 오전 10시

태아영가는 엄마.아빠의 업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 된 태아영가입니다. 엄마.아빠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 낙태된 태아영가에게 참회기도와 함께 다음생에 밝은 빛을 보게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생각을 미루지 마세요. 부모로 인하여 먼저 간 태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아빠 하루 속히 저를 어둠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지금도 태아영가는 슬프게 말합니다. 기도해 천도시켜 달라고...

망태아 영가도 생명이다.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다, 그 업보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태아영가는 조상님 천도재와 같이 할 수 없다. 부모로 인해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아빠는 그 업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 나기를 참회기도 합시다.

- 오는 날 : 입재 양력 9월 4일
- 3재 양력 9월 25일(참회 기도)
- 5재 양력 10월 9일(관육하는 날)
- 7재 양력 10월 23일(끝(회향)하는 날)

- 준비물 :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등 (갤러리 참고)
 - 49일 기도비 100,000원 • 천일 기도비 500,000원 • 위패비 한명당 5,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농협 (225051-51-113466)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5 <http://gudamsa.org> 문의 (031)529-2855

버스여행

1호차 조계사 앞(7:00)⇒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
김음역10번 출구(7:10)⇒미아삼거리역1번출구(7:20)⇒
수유역1번출구(7:30)⇒도봉산역(8:00)⇒일동시내⇒구담사

2호차 강변역 테코노마트앞(8:00)⇒
광나루역 3번출구 버스정거장(8:05)⇒
구리역앞 롯데백화점 육교밑(8:20)⇒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